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의 추제시(秋題詩)와 추사(秋士)의 자의식*

이 철 희**

- I. 머리말
- II. 시인으로서의 삶과 고뇌
- III. '추사(秋士)'와 시인의 자의식
- IV. 18세기 이후 '추사'의 자의식과 '추제시' 창작 경향
- V. 맺음말

• 국문초록

유산 정학연이 가을경물을 제재로 쓴 연작시의 형성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글은 먼저 그의 생애와 작가의식을 살펴보았다.

정학연은 유배형을 당한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서울의 유력인물과 적극적으로 교유하였으며, 사교를 위한 시의 수창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시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정학연이 공들인 인간관계는 오히려 그의 불우함을 더욱 가중시켰고, 학자로 대성하길 기대했던 아버지와의 갈등 또한 그를 더욱 빈민하게 만들었다. 60세의 노년이 되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비애가 이 연작시의 기본적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1213)

** 성균관대 수석연구원

정조가 되고 있다.

정학연은 가을을 슬퍼하는 시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추사(秋士)’라는 작품에서 현실세계와의 부조화에서 오는 내면적 갈등과 좌절한 지식인의 퇴락한 모습을 진솔하게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은 일종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데, 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더불어 비애의 시세계를 구축한 작가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 서울 문인사회 일각에서는 가을을 제재로 다룬 시의 수량이 유행하고, ‘추사’라는 자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치에서 소외된 지식인이 문인사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심미적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며, 정학연이 가을경물을 제재로 쓴 연작시는 그 절정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정학연, 정약용, 추제시(秋題詩), 추사(秋士), 시인의 자의식

I. 머리말

유산 정학연은 다산 정약용의 맏아들로서, 19세기 초 서울시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다산의 가문이 신유박해의 공격을 받아 폐족으로 전락한 처지에서 유산이 유력인사들과 교류하며 시단에서 명성을 얻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¹⁾ 유산은 당시 만수의 시를 지었다고 전할 정도로 열성적 시인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삶에는 평범하지 않은 곡절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유산의 온전한 문집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대 청년기에 지은 시를 모은 『삼창관집(三倉館集)』과 『선음(鮮音)』이나 『근체시선(近體詩選)』 등과 같은 시선집에 수록된 작품이 전하고 있다.²⁾ 그런데 『선음』에 수록된 연작시 한 편은 유산의 문학세계는 물론 조선후기 문학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초충(秋蟲)’, ‘추화(秋花)’, ‘추초(秋草)’ 등 10종의 가을경물을 제목으로 쓴 7언절구의 연작시로서 108수에 이른다. 제목과 각각의 편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秋蟲』(10수), 『秋花』(10수), 『秋草』(10수), 『秋柳』(20수), 『秋風』(10수), 『秋雨』(10수), 『秋燈』(10수), 『秋笛』(9수), 『秋士』(10수), 『秋月』(9수)

이 작품은 『선음』을 고찰한 기존연구에서 ‘가을 연작시’라는 주제로 이미 소개된 적이 있다.³⁾ 시의 내용을 ‘마현의 가을풍경과 갈대꽃’, ‘여성과 민간의 정조’, ‘가을의 고독감과 그리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

1) 이철희, 『경세가 정약용에서 시인 정학연으로-다산가 시학의 변화와 19세기 문인사회』, 『한국한문학연구』 50집. 한국한문학회, 2012.

2) 정학연이 남긴 저술과 시에 대해서는 김영진, 『유산 정학연 자료 해제』, 『다산학단문헌집성』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참조.

3) 신익철, 『시선집 선음과 정학연 가을 연작시의 정서』, 『장서각』 1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는데, 쓸쓸한 가을경물을 통하여 자기 삶을 관조하고, 고독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혹 베를 짜는 산촌과부나 소설책을 읽는 계집종을 등장시켜 여성적 정조와 토속적 정취를 표현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월의 무상감과 이에 따른 비애감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10중에 이르는 가을경물에 대한 연작시를 108수나 썼다는 점이다. 제목에 모두 ‘추(秋)’자를 넣었다는 점에서 ‘추제시(秋題詩)’라고 칭할 수 있는데, 10제(題) 108수에 이르는 형태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문학사에서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봄에 여인은 그리워하고, 가을에 선비는 슬퍼한다(春女思, 秋士悲)”라는 말이 있듯이, 조락하는 가을풍경은 유한한 생명의 슬픔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시적 대상이다. 어느 누구의 시집을 펼치더라도 가을경물을 소재로 삼거나 가을의 비애감을 표현한 작품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산의 작품이 특이한 것은 과거 시인들의 일반적 창작과는 달리 기존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양식을 구축하려 했다는 점이다. 사실 각각 제목은 일반적으로 쓰던 것이고, 때론 몇몇 제목을 묶어 연작시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0중에 이르는 가을경물을 일련의 연작시로 묶어 100여수의 시로 짓는 방식은 어떤 특별한 작가의 식과 문학사적 흐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산의 이 연작시가 탄생되는 데는 어떤 형성요인들이 작용하였을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행 작품이나 당대 유행하던 작품과의 관계성을 검토해야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시에는 ‘추회(秋懷)’, ‘추흥(秋興)’ 등 전통적으로 가을의 서정을 담당하던 작품들이 창작되는 가운데, 18세기 중반이후 문인사회 일각에서는 왕사정의 ‘추류(秋柳)’시가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유산처럼 10제(題) 108수의 대작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의 연작시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거론한 작품들은 모두 ‘추’자로 제목을 삼았다는 점에서 ‘추제시’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추제시’는 가을을 다룬 다양한 서정시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하고, 조선후

기 가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학사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유산의 ‘추제시’가 창작된 배경을 먼저 그의 생애와 시인으로서의 자의식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19세기 초 세도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침을 겪으며 고뇌하였던 유산의 내면세계가 ‘추제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피고, 유산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추사(秋士)』라는 작품을 통하여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가을과 관련된 시작품의 창작이 유행하고, ‘추사’라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조선후기 문인사회와 문학사의 변동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시인으로서의 삶과 고뇌

유산이 가을경물을 제재로 쓴 연작시가 보여주는 비애의 시세계는 먼저 그의 삶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유산이 61세 즈음에 지은 것으로, 작품 전체가 과거의 삶을 반추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들산들 가을바람에 머리털 하얗게 세니	嫋嫋秋風鬢髮皤,
슬픔 마음은 동정호 물결만이 아니다.	悲懷不獨洞庭波.
사람이 바르지 않다면 어찌 감당하랴,	人非正則何堪此,
육십년 동안 흘린 눈물은 너무도 많다.	六十年來淚已多.

(『秋風』 제1수)

찌르르 찌르르 벌레 울음 어찌 그리 우는가?	咄咄其如咄咄何
세월은 눈앞에서 인생을 빼앗아 가누나.	光陰前眼掠人過
요즘 나 또한 너희의 한과 같은지라,	年來僕亦同渠恨,
손가락 헤어보니 평생 답답한 일이 많아라.	屈指平生搔事多.

(『秋蟲』 제2수)

두 작품은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날리는 가을바람과 처량하게 울고 있는 가을벌레를 통하여 노년의 삶과 무상한 세월을 한탄하고 있다. 첫 번째 수에서 인용한 동정호는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슬픔을 노래한 곳으로 유명하다. 굴원은 망국의 한을 안고 먹라수에서 자결하였고, 두보는 동정호가 보이는 악양루에 올라 끊이지 않는 전란을 슬퍼하며 가족과 친우들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다.⁴⁾ 유산은 동정호에서 슬퍼하던 인물을 회상하며, 그들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이 슬픔을 감내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우국충정을 지닌 불우한 시인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이들에게 자신을 가탁한 것이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가을벌레에 대하여 “연래 나 또한 너의 한과 같은지라, 손가락 헤어보니 평생 답답한 일이 많아라.”라고 하여 평생의 뜻을 이루지 못한 회한을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충히 지나온 육십일 년의 세월(忽忽六十年春)”(『秋柳』 제20수), “나의 생, 삼만 육천일(吾生三萬六千日)”(『秋土』 제4수), “육십년 얼굴빛이 거울 속에 있다.(六十年光在鏡中)”(『秋土』 제6수)라는 시구에서와 같이 육십 평생의 생애를 회고하며 시를 짓고 있다. 일시적 또는 일면적 심상이 아니라, 생애를 관통하는 비애감이 하나의 시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유산이 육십 평생의 삶을 가을경물에 의탁하여 비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회한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왔음을 뜻한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노론 벽파의 독주가 시작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벌어진 신유옥사는 노론의 견제세력으로 정조가 후원하던 소론과 남인의 숙청으로 이어졌다. 남인에 속하였던 다산의 가문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다산의 매부 이승훈, 셋째형 정약중, 이복형 정약현의 사위 황사영은 처형을 당하였고, 다산과 둘째형 정약전은 강진과 흑산도로 각각 유

4) 杜甫, 『登岳陽樓』(郭知達 篇, 『九家集注杜詩』,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 戎馬關山北, 憑軒涕泗流.”; 范仲淹, 『岳陽樓記』(『范文正集』,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登斯樓也, 則有去國懷鄉, 憂讒畏譏, 滿目蕭然, 感極而悲者矣.”

배를 당하였다. 그야말로 한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아홉 나이에 가화를 당한 유산은 충신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폐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노론 벽파를 후원한 정순왕후 수렴청정이 3년 만에 끝나고,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정국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정조가 순조의 보필을 맡기며 사돈을 맺었던 김조순이 순조의 장인이자 스승으로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시파인 김조순은 안동김문의 세도정권을 탄생시킨 인물이지만, 이 시기에는 남공철, 심상규, 이상황 등 정조의 측근세력과 협력하며 국정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정국의 변화 속에서 1803년 정순왕후로부터 다산의 해배 명이 내려졌으나, 우의정 서용보의 저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10년 유산이 순조에게 직접 격쟁을 올리고 무고함을 호소하여, 순조가 ‘방축항리’로 감형한 명을 내렸고 다음해 다산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까지 하였다. 홍명주와 이기경의 방해로 또 해배는 좌절되었다.⁵⁾ 1818년 다산이 해배되기까지 다산의 복권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 유산은 이 한 가닥 기대에 운명을 걸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신고의 세월 속에서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산은 아버지의 유배지 강진과 서울을 오고가며 시인으로, 또 의술로 명성을 쌓게 된다. 유산이 말년에 교유한 이상적인 만시(輓詩)에서 “문장은 능히 나라를 빛낼 만하고 의술은 나라를 고칠 만하였건만, 이 시대 유자들은 다투어 이 두 가지를 적막하게 만들었네.”⁶⁾ 라고 하여, 유산이 문장과 의술에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결국 현실에서 크게 발휘할 수 없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나 유산의 의술이 상당

5) 다산의 해배과정에 대한 논의는 정석중, 『순조년간의 정국변화와 다산해배운동』, 『국사관논총』 47, 국사편찬위원회, 1993, 75~113쪽 참조.

6) 李尙迪, 『恩誦堂集』續集 권6, 『奉挽丁西山直長』, “…文能華國醫醫國, 斯道爭禁兩寂寥.”

한 인정을 받았으며, 유력이 인물들과의 교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산은 유산이 의술을 빙자해 재상가와 교의를 맺는 것에 반대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고, 또 유산의 의술로 다산이 해배될 수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⁷⁾

한편 유산은 시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신필영(申弼永)은 “유산의 시법은 조선을 창도하였다.(西翁詩法倡吾東)”라고 하였고,⁸⁾ 추사의 제자로 유산과 교유한 소치 허련은 유산이 비록 포의의 신분이었지만 시명(詩名)이 일세를 떨쳐 고관대작의 인물들이 벗으로 사귀었다고 증언했다. 유산이 시명을 얻었다는 점과 유력 인물들과 교유하였다는 점 사이에는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당시 지식층의 교유는 대개 시회나 시사(詩社)의 모임에서 수창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형성된 인맥이 입신의 주요한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신필영은 유산의 시가 선집에만 만수(萬首)가 수록되었다고 하였는데⁹⁾, 중국 송대 시인 육유가 만수를 지어 다작의 시인으로 손꼽혔다는 점에 미루어본다면, 사실여부를 떠나 대단히 열정적으로 활동했음을 뜻한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맥을 쌓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산과 가장 절친하였던 이만용(李晩用) 가문이 유력인사와 적극적 교유하며 시인으로 명성을 떨쳤던 사실을 보면 당시 시인으로 활동한 유산의 상황을 좀 더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부 이봉환(李鳳煥)으로 인해 폐족으로 전락한 뒤 이명오와 이만용 부자는 가문의 복권을 위하여 평생 이봉환의 신원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¹⁰⁾ 이로 인해 유력

7) 이철희, 『경세가 정약용에서 시인 정학연으로-다산가 시학의 변화와 19세기 문인사회』, 230쪽 참조.

8) 申弼永, 『玉坡集』 권1, 『丁西山品石亭小集』

9) 申弼永, 앞의 책, 『溯上紀行絕句』, “水樹風流丁繼之, 老來不減少年時. 一生身在烟波上, 選本猶存萬首詩.”

10) 이봉환은 정조가 세손시절 사도세자의 묘사(墓祀)에 참배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장살을 당한 최익남 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하였다. 이 가문의 신원운동에 대해서는 이현일, 『이봉환 삼대의 비원』 『문헌과학석』 20, 문헌과학석

인물들과의 교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들은 당대 유력가문의 인물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수창한 시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시 창작의 조력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시우(詩友)’로 칭해지기도 하였다. 수창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시를 지을 때는 뛰어난 실력자의 조언과 평가가 창작의 난제를 해결하고, 시흥을 돋우며 활력을 불어넣기 마련이다. 이명오와 이만용은 이봉환의 신원을 위해 유력가문의 인물들과의 교류가 절실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정계와 인맥이 닿을 수 있는 시사에 적극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시적 재능은 단련되고 결국 시인으로 유명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¹¹⁾

서족과 사대부가라는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폐족으로 전락한 가문의 절박한 사정에서 시적 재능을 활용하여 인맥을 확보함으로써 가문의 활로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유산과 이만용이 가장 절친할 수 있었던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시사와 시회에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권력을 지닌 자와 그 힘에 의탁하려는 자의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유산이나 이만용은 어디까지나 후자의 입장으로, 갈등과 변민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¹²⁾

1805년 23세때 유산이 서울에서 돌아와 그 소회를 토로한 『귀가(歸家)』란 작품은 서울활동에 대해 유산의 속내를 보여준다.

보리가 장에 나올 즈음 도성으로 들어갔다, 밀 벨 무렵 집으로 돌아와 머문다.	大麥登場入城去, 小麥刈時還室處.
은행 이미 익고 약초 싹 향을 풍기는데 오동나무 그늘아래 세죽은 온갖 근심을 씻어내다	杏子已熟藥苗香, 洗足桐陰消萬慮.
도성 거리의 흙먼지 마치 구름연기 같은데	市陌塵漲如雲煙,

사, 2002, 26~47쪽.; 이현일, 『동변 이만용 시 연구(1)-동변집 소재 칠언율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310~313쪽 참조.

11) 이철희, 『경세가 정약용에서 시인 정학연으로-다산가 시학의 변화와 19세기 문인사회』, 231~232쪽 참조.

12) 유산과 이만용 집안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철희, 앞의 논문에서 인용.

저들을 보니 어깨를 부딪치며 모두가 분주하다.	看渠掉臂皆匆遽.
어사의 말을 탄들 어찌 고기 낚는 편안함만 같겠으며,	騎驄何似釣魚安,
소 치며 벼슬 구한들 미나리의 포식만 하겠는가?	食牛何如芹子飫.
부릅뜬 눈 타는 듯, 마음도 불타올라	瞋目如炬心如焚,
바로 구하러 하나, 어찌할 수 없으라.	直欲極救愛莫助.
땅 보고 하늘 보고 흥금을 쏟아내니 북창에 바람이 들고,	俯仰瀉襟北窓風,
술잔을 잡아 송화주를 마시니 새벽이 밝아 온다. ¹³⁾	引酌松醪遂達曙

봄과 밀은 5월에 익는데, 이삭이 팬 후 밀이 보리보다 5일정도 늦게 여문다고 한다. 유산은 그 이상의 기간을 서울에서 보내고 귀가한 듯하다. 보리 수확의 때를 놓치면 비를 맞아 상하기 때문에 ‘보리를 거둘 때는 불 끄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농사일이 가장 바쁜 때이다.¹⁴⁾ 이 시기를 서울에서 보낸 유산은 한가해진 고향으로 돌아와 흙먼지 속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도회지를 회상한다. 이어 영화로운 어사보다는 낚시질하는 어부가 편하며, 소를 치며 벼슬을 구하는 것보다 미나리로 배를 채우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소를 치며 벼슬을 구한다는 것은 춘추시대 백리해와 영척(甯戚)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¹⁵⁾ 맹자가 백리해는 벼슬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키우는 비굴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듯이, 이 고사는 입신을 위한 구차한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¹⁶⁾ 이처럼 유산이 관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가문의 활로를 찾기 위

13) 丁學淵, 『三倉館集』(『다산학단문헌집성』 1, 대동문화연구원, 2008) 乙丑集, 『歸家』
 14) 洪萬選, 『山林經濟』 권1, <大麥·小麥>조, 한국고전번역원 DB 참조.
 15) 虞나라 대부였던 백리해는 秦나라로 망명하여 穆公을 보필하는 명재상이 되었는데, 군주의 주목을 받기 위해 스스로 소를 키우는 일을 하여 등용되었다고 한다. 周나라의 王子 嬖가 소를 좋아하여 소를 키웠다는 설도 있고, 진나라 목공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소를 키웠다는 설도 있다. 전자는 사마천의 『사기』 「秦本紀」 참조, 후자는 『맹자』, 『萬章章句上』 참조. 또한 衛나라 출신의 甯戚도 장사꾼의 수레를 끌다가 제나라에 이르러 환궁 앞에서 소를 먹이다 소뽕을 치며 노래를 불러 재상에 등용되었다고 전한다. 『呂氏春秋』, 『舉難』 참조.
 16) 『孟子』, <萬章上>, “萬章問曰, 或曰, 百裏奚自鬻於秦養牲者五羊之皮, 食牛以要秦穆公. 信乎. 孟子曰, 否, 不然, 好事者爲之也. 百裏奚, 虞人也. … 知虞公之不可諫而去之秦, 年已七十矣. 曾不知以食牛幹秦穆公之爲汚也, 可謂智乎.”

한 시도들이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그가 서울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다음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부릅뜬 눈은 불타오르고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으며, 이 불길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오로지 하늘과 땅만 바라보며 삭이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다. 이 같은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은 아직 혈기왕성한 유산에게 서울활동이 얼마나 큰 갈등과 좌절을 맛보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해 정월 벽파를 지원하였던 정순왕후가 사망하자 그간 추축되었던 시파의 인물들이 복귀하기도 하였는데¹⁷⁾, 정작 해배의 명을 받았던 다산은 유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배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산의 서울활동은 이러한 좌절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난 1808년에도 유산은 여름 선달을 서울에서 보낸다. 그 때 쓴 시 『집으로 돌아와 책과 여러 물품을 햇빛에 말리며 쓰다』에는 당시 유산이 서울에서 생활하며 느낀 심사가 표현되어 있다.¹⁸⁾ 이 시에서 유산은 현시점에서 좋은 일이란 물처럼 형세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생의 이치에 통달한 달인은 예로부터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더 이상 집에서 수신과 치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떻게든 세상에 나가 어울려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긴 외출에 대한 변명이라 하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구에서는 늦은 밥상을 대하니 가족들은 무슨 연유로 허리둘레가 줄었느냐고 묻는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허리둘레가 줄었다는 표현은 『열녀전』에 전해오는 망묘(芒卯)의 후처에 대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녀는 전처의 아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죄를 범하여 처형을 당하게 되자 그의 구명을 위해 근심하고 슬퍼하여 허리띠가 한 자나 줄었다고 전한다. 삼복 무더위

17) 정석중, 『순조년간의 정국변화와 다산해배운동』, 78쪽 참조.

18) 丁學淵, 『三倉館集』, 『歸家曬書物有題』, “三夏遊京今始歸, 滿檐秋日曬書衣. 牆根不歇一蛩語, 杜後猶看雙燕飛. 好事於今隨水逝, 達人自古在家稀. 晚盤紅稻兼蘆葦, 問爾緣何減帶圍.”

속에서 유산은 아버지의 구명을 위하여 살이 빠질 정도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산이 포의의 신분으로 유력가문의 인사나 고위관료과 교류하였다는 증언들은 일면 유산의 위상을 높이지만 현실 속에서 유산은 살이 빠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산이 교류한 인물들의 시에도 이러한 점을 읽을 수 있다. 유산이 홍현주의 집에 머물다 귀가하자 홍길주가 써준 송별시에서 “떠나가더라고 번민하지 마시게, 시인이 어찌 궁할 날이 다할 수 있겠는가.(但去莫煩惱, 詩人詎盡窮.)”라고 하였다.¹⁹⁾ 유산이 뜻하던 대로 일이 잘 안 풀린 상태로 떠났기에 번민하지 말라 한 것이다. 또 시인은 곤궁할수록 시가 뛰어나다는 ‘시궁이공(詩窮而工)’설에 입각하여 말하고 있지만, 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도와줄 방도가 없으니 인내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홍길주는 위로의 뜻으로 했겠지만, 유산에게는 단념을 권하는 뜻으로 들려 낙담할 수 있는 말이다. 유산은 정조의 사위인 홍현주 등 홍씨집안의 형제들과 각별하게 사귀며 사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과의 교류가 현실적인 도움을 얻는데 여의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시인으로서 유산의 위상을 높이 칭송한 신필영도 “강호에선 유유자적하니 몸은 평온하고, 도성에선 마음 냉랭하니 꿈 역시 헛되어라.”²⁰⁾라고 하여 서울활동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으며, 그가 바라던 바가 결국은 헛된 꿈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하였다. 남병철도 당대 교류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은 회인시(懷人詩)에서 유산을 회상하며 “괴로움과 험난함을 두루 맛보니, 한글자인들 어찌 가난을 구할 수 있었으랴. 이제야 알겠네, 독서는 아무런 보탬이 없으니 범중엄(范仲淹)이 차라리 훌륭한 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을.”라고 하였다.²¹⁾ 유산이 서울에서 시인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이

19) 洪吉周 著, 박무영 이주혜 외역, 『縹緲乙幟』(中)(『홍길주문집』4, 태학사, 2006.)
『西山東歸, 舍弟有送別詩, 直中追次』

20) 申弼永, 『玉坡集』 권1, 『丁西山品石亭小集』, “江湖迹散身偏穩, 城市心涼夢亦空.”

21) 南秉哲, 『圭齋遺藁』 권1, 『懷人詩』, 丁西山學淵, “艱難險阻備嘗之, 一字何曾得

생활이 간난신고와 좌절을 맛보았을 뿐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송나라 명제상으로 이름난 범중엄이 어린 시절 나라의 재상이 못된다면 차라리 뛰어난 의원이 되어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듯이, 유산 또한 열망하던 입신의 뜻을 의원의 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말한 것이다.

유산의 고뇌는 유력가 인물들과의 교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다산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부담과 갈등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편지를 보내거나 때론 직접 강진으로 내려와 생활하게 하는 등 두 아들을 지도하는데 매우 노심초사하였다. 비록 폐족으로 전락하였지만 사대부 집안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책을 하나하나 지도하였다. 폐족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자세를 비롯하여, 세세한 공부방법이나 생계방편, 집안 대소사 등을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인으로, 의원으로 활동한 유산과는 갈등이 없지 않을 수 없었다. 시 창작은 사대부로서 교양이나 과거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직접 시학을 지도하기도 하였지만, 시인으로 명성을 얻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의원으로 행세하여 유력가와 교분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격노하기까지 하였다. 다산의 유배초기 20대 초반이었던 유산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때론 학문의 진전을 보여 다산의 기대를 부풀게 하였고, 다산의 지침에 따라 경사예악은 물론 병농의약 등 실용학문도 섭렵하여 『종축회통(種畜會通)』이나 『십병함해(十病函海)』의 저작을 엮었고, 「종산사(種蒜詞)」, 「종맥탄(種麥歎)」, 「양잠시(養蠶詩)」 등 자신이 경영한 마늘, 보리농사와 양잠 등을 다룬 작품을 남기고 있다.²²⁾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산은 이미 25세를 즈음 서울을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救飢。始覺讀書無所益，希文餘願作良醫。”

22) 김지영, 『삼창관집을 통해본 유산 정학연의 초기 시세계』, 『시학과 언어학』 23, 시학과언어학회, 2012.

유산이 서울활동을 시작한 것이 전적으로 유산의 선택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듯하다. 1805년 두 번째로 강진을 내려온 유산을 맞이하여 지은 다산의 시는 다소 양면적 모습을 보여준다.²³⁾ 장편으로 지은 이 시는 유산을 첫 대면하는 장면부터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을 써내려가는데, 그 가운데는 유산이 인생진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랜만에 부자가 대면하여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 유산이 농경에 뜻을 두고 있는 듯, 밤나무, 옷나무, 송채, 마늘 등 자신이 직접 짓고 있는 작물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자, 다산은 “처절하고 또 처절하도다.(棲切復棲切)”라고 애통해하며, 애써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돌리는 장면이 나온다. 다산이 가계의 대책으로 농경을 권하며 구체적 방법까지 가르쳐준 사실을 떠올리면 의외의 반응이다. 오히려 유산을 격려하고 농경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명문가 자손인 자신의 아들이 일개 농부나 다름없이 변한 것을 직접 목도하자 다산은 처연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산이 말을 돌려 가화를 당해 집안의 서책이 불타 없어진 사실과 정조의 지우를 입은 몸으로 다시 뜻을 펼칠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절간에서 구걸하고 있음을 한탄하였다. 이어 다산은 “인생은 약한 풀과 같은 것, 더구나 너무 늙고 피곤함이라. 하루아침에 풀의 이슬처럼 사라진다면, 그 뜻을 누가 있어 알아 줄 것인가. 내 지금 너에게 이 시를 주어 읽히노니, 돌아가 네 아우의 스승이 되라.”라고 끝을 맺는다. 유산은 이 시를 읽고 무엇을 느꼈을까. 다산은 농경에만 전념하지 말고 당당한 학자가 되어 자신의 뜻을 계승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산은 노쇠해가는 다산이 복권되어 다시 뜻을 펼칠 기회가 촉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보다 빠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경에 종사하며 학문을 닦아 후세를 기약하는 방법보다 아버지의 해배를 직접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아버지의 한을

23)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5(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學稼來, 携至寶恩山房有作」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해결책이 있는 서울로 향하고, 유력인사와 교분을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시에서 바쁜 농사철에 집을 비우고, 여름 석 달의 긴 시간을 서울에서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산은 아들들이 자신의 뜻대로 학문에 매진하지 않자, 학문과 독서만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고, 세상에 알려진 불초한 자식보다 더 못한 놈이라고 분노하였다. 군왕의 지우를 입은 관료출신으로, 유배 중에도 경국제세의 학문에 혼신의 힘을 다한 다산과 폐족의 자식으로 서울을 왕래하며 시인으로, 의원으로 처신한 유산 사이에는 끝내 합치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은 다산이 해배되고 유산이 노성한 나이가 될 때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다산이 유산을 보는 시선은 다음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중양절이 지난 뒤로 또 삼 일째가 되어라	重陽過後又三朝,
옛날 태어난 날을 생각하니 하룻밤 사이 같구나.	憶昨懸弧似隔宵。
너는 지금 백수로 쓸쓸한 신세가 되었고	白首汝今成濶落,
나는 이미 불 꺼진 재처럼 적막하여라.	灰心吾已付蕭寥。
국화송이엔 서리 내려 꽃받침이 얼어붙고	霜持菊蕊青跼結,
오이넝쿨은 비가 쳐서 검은 잎 말랐으니.	雨打瓜藤黑葉凋。
나락 베고 보리 심을 때가 사뭇 급한데	刈稻播牟時轉急,
질뚝발 당나귀로 언제 동교를 건너올거나. ²⁴⁾	蹇驢幾日度東橋。

중양절이 지난 시절 서울에 머물고 있는 유산을 생각하며 지은 시인데, 노년에 접어든 장남과 자신의 처지를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다산은 해배되어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재등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산 역시 포의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가계를 보존하기 위한 농경은 가장 바

24) 정약용, 앞의 책 권6, 『九月十二日, 憶子淵, 示子游, 令次韻』

뿐 철을 맞이했건만 유산은 또 서울에 나가있던 것이다. ‘절룩발 당나귀’는 당나라 시인 가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빈궁한 시인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다산은 시인으로 행세하는 유산의 삶이 몹시 못마땅하였던 것이다. 제목에 동생 정학유에게 이 시를 보여주며 차운하여 시를 지으라 명하고 있으니, 형 유산의 삶을 똑똑히 보고 이야기해보라는 노여움을 읽을 수 있다. 유산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산으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부자지간은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은 입신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고, 아버지의 재기가 곧 자신의 활로가 되던 시대였다. 해배 후에도 다산은 정계의 주목을 받아 임용의 논의가 있는 가하면 다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하였다. 유산에게는 아직도 서울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신을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다산의 태도에 유산은 고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울활동에서 입은 상처와 아버지가 대하는 냉담함 속에서 유산은 그 어디에도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산은 결국 다시 등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떴고, 그 후 6년 뒤 유산 또한 여전히 포의의 신세로 60세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통과 고뇌에 찬 삶에 대한 반추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추제시’라고 할 수 있다.

Ⅲ. ‘추사(秋士)’와 시인의 자의식

유산의 추제시에서 시적 대상은 대개 가을의 경물에 해당한다. ‘추충(秋蟲)’, ‘추화(秋花)’, ‘추초(秋草)’, ‘추류(秋柳)’ 등과 같이 가을의 조락을 보여주는 경물이거나, ‘추풍(秋風)’, ‘추우(秋雨)’, ‘추등(秋燈)’, ‘추적(秋笛)’, ‘추월(秋月)’과 같이 가을의 쓸쓸한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경물이 소재이자

제재로 쓰였다. 그러나 이중 ‘추사(秋士)’라는 제목은 선행 작품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²⁵⁾ 대개, ‘추사비(秋士悲)’라는 말을 직역하면 가을에 ‘사(士)’가 슬퍼한다는 것이지, ‘추사’라는 하나의 인간 유형이나 부류를 따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산은 ‘추사’를 다른 경물처럼 하나의 소재로 다루고 있다.

먼저 다음 몇몇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단청은 나뭇잎에 맑고 곱게 물들었는데 거사의 초가집은 다만 한두 칸뿐이라네. 남은 책을 모두 팔아 술빚을 갚고 난 뒤 뚱뚱한 배 가져다 가을 하늘에 말린다.	丹青樹葉點晴妍, 居士茅齋只數椽。 鬻盡殘書還酒債, 自將便腹曬秋天。 (『秋士』 제1수)
---	--

(나)외양간 옆 마당엔 노적가리 높게 있고 게 익고 놓어 향 질어가니 늙은이 식탐이 생겨난다. 항상 괴이한 것은 청빈하고 소박한 왕효백(王孝伯), 무엇이 괴로워 이소(離騷)를 읽는지 알지 못했네.	牛宮側畔稻堆高 蟹熟鱸香作老饕 常怪清疎王孝伯, 不知何苦讀離騷。 (『秋士』 제2수)
--	--

(다)가을 강 홀로 낚시하며 푸른 도롱이 걸치니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 채 두 귀밑머린 흰실이 되었네. 만약 두릉(杜陵)의 지기전(知己傳)을 짓는다면 책 앞에는 마땅히 해오라기 녀석들을 써야 하리.	秋江獨釣綠蓑披 一事無成兩鬢絲 擬作杜陵知己傳 卷頭當寫鷺鷥兒。 (『秋士』 제9수)
---	---

(라)일신의 냉냉함은 가을빛이 어울리니. 꼭 어부나 나무꾼 같고, 농부와 같네. 재에 쓴 글을 유심히 보지 마시게나,	一身嚴冷稱秋容, 也合漁樵也合農。 且莫細看灰書字,
---	----------------------------------

25) 우리나라의 한국고전번역원의 문집총간이나 중국의 사고전서에서는 현재까지 ‘秋士’라는 시 제목은 검색되지 않는다. 전근대 모든 시작품을 대상으로 검색한 것은 아니지만 ‘추사’라는 시 제목이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늘은 이 몸 불품없이 늙게 만드셨으니.

天生此骨老龍鐘.

(『秋士』 제10수)

위 작품은 마치 하나의 인물을 시적 대상으로 그리듯 형상화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나무도 하는 가난한 지식인이 한 칸 초가집에 살며, 하는 일이라고는 자연이 선사하는 안주에 저당 잡힌 돈으로 술을 마시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때론 이소를 읊조리며 그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 시골 노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매 작품마다 인용한 고사를 음미해보면 삶에 대한 좌절과 불만이 함축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가)에서는 가난한 선비가 남은 책을 모두 팔아 술을 사마시고, 불룩해진 배를 가을 하늘에 말린다고 하였다. 옛날 칠석날 책을 말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진나라 학룡(郝隆)이란 자가 누워 햇빛을 쬐면서 책을 말린다고 말한 고사를 취한 것이다. 흔히 ‘만복경륜(滿腹經綸)’, 또는 ‘만복문장(滿腹文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문과 문장이 배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표현이다. 이 고사를 통해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책을 술과 바꿔 먹는 행위는 학문으로 출세할 수 없는 현실세계에 대한 깊은 좌절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왕백효의 말을 인용하여 우국충정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굴원이 남긴 『이소』를 고통스럽게 읽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동진(東晉)시대 왕공(王恭: 孝伯은 그의 자이다.)은 효무제(孝武帝)의 처남으로서 당시 정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한편으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이 난 인물이었다. 그는 시주(詩酒)와 청담을 즐긴 죽림칠현과 같은 부류의 인물을 조롱하여, “명사(名士)란 반드시 기재(奇才)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일 없이 지내면서 술을 통음(痛飲)하고, 『이소』를 숙독하면 곧 명사라고 부른다.”²⁶⁾라고 하였다. 왕효백은 그

26) 劉義慶, 『世說新語』(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王孝伯言, 名士不必須奇才. 但使常

들이 무슨 고통으로 인하여 폭음을 하고 『이소』를 낭송하지는 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산은 꼬집고 있다. 이 독백은 할 일없이 술이나 마시고 『이소』나 읽으며 불우함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에서는 늙도록 어느 것 하나 뜻대로 이론 것이 없는 회한을 표현하며, 자신의 지기(知己)를 입전한다면 해오라기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하여 현실세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고독감을 토로하였고, (라)에서는 송대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구양수가 몹시 가난하여 종이대신 재위에 글자를 썼듯이 유산도 그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자신은 그저 나무꾼이나 농부처럼 누추하게 쇠락한 늙은이로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낙담하고 있다.

위 시에 나타난 ‘추사’는 불우한 지식인의 낙천한 생활상과 심회를 담고 있는데, 대체로 구체화된 사적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두릉(杜陵)’은, 곧 유산의 고향 마재를 직접 명시하였고, 제 5수에서는 “육척의 지팡이에 시 한 권, 가을 빛 속 백운암(白雲菴)에 그 사람이 있네.”²⁷⁾라고 하였는데, ‘백운암’은 남병철이 정학유의 아들 정대무(丁大懋)와 함께 조성했다고 밝힌 누정을 지칭한다.²⁸⁾ 그밖에도 다소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유산의 실제적 생활상과 다르지 않다. 유산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한때 학문을 포기하려 하였고,²⁹⁾ 앞서 본 「귀가」나 「집으로 돌아와 책과 여러 물품을 햇빛에 말리며 쓰다」라는 작품에서처럼 서울을 다녀온 뒤 옷과 책을 말리며 서울생활에 대한 번민에 분노하기도 하였다.

得無事，痛飲酒，熟讀離騷，便可稱名士。”

27) 丁學淵, 『三倉館集』, 『秋士』(五), “綺羅弦管水如藍, 何處唵蓬興不堪. 六尺筇枝詩一卷, 秋暉人在白雲菴.”

28) 南秉哲, 『圭齋遺藁』 권1, 「贈丁子園」, “如此江山赴子期, 因緣文字尙嫌遲. 才名君有七分矣, 禪味吾能一嚮之. 【自註:時與子園造白雲菴】” 참조. 子園은 丁大懋의 字이며, 大산의 海배를 道은 南公轍의 후손 南秉哲은 大산가의 인물들과 매우 친밀하게 交유하였다.

29) 丁學淵, 『三倉館集』, 『種蒜詞』, “閔貢卻詵摠高人, 隱居經濟臨書歎. 操觚寫字無人識, 且把長鑿試余腕.”

또 때로는 벗들과 남한강 일대 물길을 따라 유람하며 시주를 즐기기도 하였다.³⁰⁾ 유산이 형상화한 인물의 삶은 자신의 실제적 삶의 국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내면세계를 하나의 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 두 작품은 선행 시인에 비유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병든 후 흐트러진 센 머리를 비스니, 가여워라, 뼈만 앙상한 심약(沈約)이런가. 장안사(長安寺) 안 나무는 모두 붉게 물드는데, 이 가을 꼬리 짧은 나귀는 한가하기 그지없네.	病後鬢髮雪滿梳, 堪憐瘦骨沈郎如。 長安寺裏多紅葉, 閒殺今秋秃尾驢。
---	--

(『秋士』 제3수)

(바)나의 생애, 삼만 육천일, 하루하루 세상살이 하루하루 수심이 인다. 송옥, 반약보다 더 어리석은 미치광이 공연히 사부(詞賦)를 지어 홀로 가을을 슬퍼한다.	吾生三萬六千日, 日日人間日日愁。 宋玉潘郎更痴絕, 枉將詞賦獨悲秋。
--	--

(『秋士』 제4수)

위 시에서는 중국 작가 심약, 송옥, 반약에 비유하여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이 유명 시인이란 점에서 시인으로서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에서는 병약하여 매우 수척하였던 심약에 비유하고 있다. 심약은 남조의 문인으로 외롭고 가난한 처지에서 박학과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며 태자소부의 자리에 오르고, 『송서(宋書)』를 편찬하여 ‘일대문종(一代文宗)’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성팔병설(四聲八病說)’을 제기하여 시율의

30) 丁學淵, 앞의 책, 『游水鍾寺途中口號』, “…班荊徑醉游山酒, 遵渚頻逢逐浪橈…” 및 『江行絕句十首』, 『舟中十二時詞』 등에 남한강 일대를 배로 유람하며 시주를 즐기는 삶이 그려져 있다.

형식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특히 심약은 정치적 파란 속에서 노심초사하여 역대 구멍을 줄여야할 정도로 야위었다고 하여, 후대에는 깊은 고뇌로 쇠약해진 시인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등장하는 ‘꼬리 짧은 나귀’란 북사(北史) 양음전(楊愔傳)에 나오는 고사이다. 양음은 사람을 잘 기억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노만한(魯漫漢)이라는 인물을 선발한 적이 있었다. 노만한은 스스로를 미천한 출신으로 식견이 없다고 하였는데, 양음은 그가 예전에 꼬리 짧은 나귀를 타고 길을 가며 자신을 보고도 나귀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정확히 기억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꼬리 짧은 나귀’ 즉, ‘독미려(秃尾驢)’는 가난한 선비를 주로 상징하게 되었다. 그런데 송대 시인 육유가 『한가로이 거처함에 일이 한 가지도 없어 장난삼아 짓다』라는 작품에서 “꼬리 짧은, 만한의 나귀가 아직 없다(秃尾猶無漫漢驢)”라고 한 것은 노만한이 꼬리 짧은 나귀를 타고가다 양음을 만나 발탁되었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함을 표현한 것이다.³¹⁾ 유산 역시 ‘독미려’가 한가하기 그지 없다고 한 것은 자신이 가난한 선비임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인재를 발탁해주는 인물이 없음을 한탄한 것이다. 당시 장안사에 단풍이 불게 물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지인들은 금강산 유람을 떠났는데 자신만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에서 비유한 송옥과 반약은 ‘추사비(秋士悲)’의 원류를 이루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굴원의 초사를 계승한 송옥의 『구변(九辯)』에서 “슬프다, 가을 기운이 됨이여. 소슬한 바람 부니, 초목 흔들려 떨어지고 시들어 변하네.(悲哉秋之爲氣也, 蕭瑟兮草木搖落易變衰)”라는 첫 구절은 ‘비추(悲秋)’의 대표적 시구로 인용되어 왔다. 『구변』은 불우한 선비가 관직을 잃고 그 불만과 비애를 토로하며, 암담한 정치현실을 폭로한 작품인데, 이로 인해 후대 시인들은 가을을 슬퍼한 송옥에 의탁하여 부조리한 현실로

31) 陸游, 『劍南詩藁』, 『幽居無一事戲作』, “長鬚僅有玉川奴, 秃尾猶無漫漢驢.”

인한 불만과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두보는 『영회고적(詠懷古跡)』 제 2수에서 다음과 같이 송옥의 ‘비추’를 인용하였다.

낙엽지는 모습 보니 송옥의 슬픔 알겠고	搖落深知宋玉悲,
풍류와 박식한 문인의 기질 또한 나의 스승이 될 만하다.	風流儒雅亦吾師.
천년 세월 슬프게 바라보며 눈물 뿌리니	悵望千秋一灑淚,
신세가 처량한 것은 시대가 다르고 시기만 다를 뿐이네.	蕭條異代不同時.

두보는 송옥의 ‘비추’에 심분 공감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까지 말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처량한 신세는 시대만 다를 뿐 똑 같은 처지라고 피력하고 있듯이, 두보 역시 정치적 소외에서 오는 비애를 ‘비추’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반약은 서진시대 문인으로 『추흥부(秋興賦)』를 지었다. 이 작품에서 송옥의 『구변』 첫 구절 “슬프다, 가을 기운이 됨이여. 소슬한 바람 부니, 초목 흔들려 떨어지고 시들어 변하네.”를 인용하여 공감을 표시하였다. 송옥의 작품에서와 같이 심각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분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갑갑한 자신의 처지를 가을의 쓸쓸한 경치에 담아 인생무상의 비애를 표현하였다.

유산이 송옥과 반약을 함께 거론한 것은 이들이 가을을 슬퍼한 명작을 남긴 시인으로 자신보다 앞선 ‘추사’의 원류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추사’가 하나의 계보로 인식되며 시인으로서 정체성을 보다 명료하게 뜻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유산이 이 시인들을 전인격적 평가보다도 문인 또는 시인이라는 제한된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국충정이나 경세제민과 같은 도덕적 관점보다는 ‘비추’ 즉 생명의 유한성에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문예적 관점에서 이 시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유산이 자화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추사’의 면모가 전통적

사대부의 출처관이나 도덕적 가치관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것과 상통한다.

‘추사’란 ‘추사비(秋士悲)’, 즉 가을을 슬퍼하는 시인을 지칭 맥락에서 나온 용어로 그 원류로 지목되어온 송옥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불우함이 바탕에 깔려있다. 우국충정의 의지를 품고 있으면서도 현실세계에서 펼칠 수 없었던 지식인의 불우함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추사’의 의미 속에는 정치·사회적 분노나 불평으로 창작 동기를 설명한 사마천의 ‘발분설(發憤說)’이나 한유의 ‘불평설(不平說)’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기준에 불우한 시인을 주로 표현해왔던 ‘감개지사(感慨之士)’나 ‘연조지사(燕趙之士)’의 경우는 모두 지사(志士)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추사’는 ‘지사’보다는 유한한 생명으로서 공감을 강조하는 ‘시인’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산은 자신의 생애와 내면세계를 진솔하게 투영한 자화상으로 ‘추사’를 형상화함으로써 보다 개별화된 시인의 자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불평이나 분노는 내밀하게 잠복되고, 사적인 불우함과 절망이 표면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유산의 ‘추사’편에 그려진 다소 자조적인 자화상에는 시인으로서의 진정성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가감없이 표현하려는 의식 역시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산은 답습과 모방의 시를 거부하고, 창작의 동인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사심(師心)’론을 주장하며, 자기 ‘본색(本色)’의 표현을 강조하였다. 그 모든 기초에는 시인의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³²⁾ 유산이 제시한 ‘추사’에는 자신의 불우함에 대한 진정한 응시와 표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산이 ‘추제시’를 통하여 비애감이 주조를 이루는 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수용한 ‘추사’라는 자의식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2) 이철희, 『경세가 정약용에서 시인 정학연으로-다산가 시학의 변화와 19세기 문인사회』, 225~229쪽 참조.

IV. 18세기 이후 ‘추사’의 자의식과 ‘추제시’ 창작 경향

‘추사’라는 용어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유산보다 반세기 앞서 활동한 연안그룹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작품에서 ‘추사’ 또는 ‘추제시’와 연관된 ‘추시(秋詩)’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연안그룹은 ‘추사’로서 자신 또는 동류인사를 지시하였다. 이덕무는 가을날 여행 중 농막에서 숙박하며 지은 시에서, “시골 마을을 오고가니 나그네 시름 새로운데, 가을 선비는 우울하여 폭음이 잦다네.(揭來田圃旅思新, 秋士牢騷痛飲頻.)”라고 하였고, 또 다른 시에서는 “농가의 범례는 시경 『빈풍도(飭風圖)』에 남아있고, 가을 선비 펼쳐내는 것은 초나라 이소(離騷)로다.(農家凡例飭風畫, 秋士鋪舒楚國騷)”라고 하여 자신을 ‘추사’라고 지칭하였다.³³⁾ 유득공과 박제가 등과 모여 삼청동 읍청정에서 노닐며 지은 시에서는³⁴⁾ 당시 시회의 모습을 “가을 선비 붓 더욱 굳세 지고, 그 음률은 더욱 깊고 맑구나.(秋士筆倍勁, 其音盡泓淳)”라고 하여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을 모두 ‘추사’라고 칭하였다. 박제가는 『진위(振威)』라는 시에서 “세상 끝 바라보니, 어찌 가을 선비의 감회를 금할 수 있으며, 바람 맞으며 홀로 읊조리니 초나라 사람의 노래로다.(極目那禁秋士感, 臨風自詠楚人辭)”라고 하였고, 성대중에 대해 시를 지으면서 “미관이 숙직하니 삼매경이 없어, 가을 선비 슬픈 노래 아홉 장을 짓는다.(微官上直無三昧, 秋士悲歌有九章.)”³⁵⁾라고 하였다. 연안그룹은 ‘추사’를 거론할 때 주로 굴원의 『이소』나 『구장』 등 초사를 함께 거론함으로써 굴원과 송옥으로 대표되는 회재불우의 시인적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33)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9권. 雅亭遺稿 一, 『題田舍』;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9권, 雅亭遺稿 三, 『秋宵雷雨, 旅臥佃屋, 擘爾而成, 痛飲大白.』

34) 李德懋, 앞의 책, 雅亭遺稿 一, 『七夕翌日, 徐汝五·柳連玉·運玉·惠甫·尹景止·朴在先, 同遊三清洞挹清亭.九首.』

35) 朴齊家, 『貞葵詩集』, 『次成祕書重陽雅集』

또한 유득공의 문집에는 윤치삼(尹穉三)이라는 인물의 시집에 써준 「추실음서(秋室吟序)」라는 글이 있는데, ‘추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윤치삼은 당시 문명을 얻었지만 과거를 포기하고, 자신의 거처를 ‘추실(秋室)’이라 명하였다고 한다. 당호를 ‘추실’이라고 지은 이유는 자신이 추기(秋氣)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득공은 “그대가 가을 기운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시는 봄 구름의 자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윤치삼은 “예로부터 가을을 슬퍼하는 선비는 굴원과 송옥만한 시인이 없지만, ‘미인’과 ‘향초’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체를 드러내는데 무슨 해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³⁶⁾ 이 대화는 당시 시인으로서 ‘추사’라는 자의식의 형성과 그에 따른 문예의식의 변화를 시사한다. 과거진출의 실패, 즉 관료로서의 입신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이 문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사’로 표명하였으며, 굴원과 송옥에 자신을 투영하며 문사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예의식은 심미적 경향을 지니게 되어 앞서 유득공의 표현처럼 ‘봄 구름’같은 작품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추사’와 ‘추제시’가 보다 비중있게 문인사회에 등장하는데, 대표적 사례를 유산과 교류하였던 자하 신위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신위를 중심으로 소위 ‘추시(秋詩)’로 칭해지던 가을 제재의 시가 수창되던 시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노(怡老)와 광원(曠原)이 아름다운 시편을 번갈아 지어내니 일시에 작품집이 모였다. 나는 시명(詩命)을 따라 짓기에 피곤하여 전문에 맞추어 네 수를 지어 두 사백(詞伯)에게 주었다. ‘추시’를 짓는 것은 여기서 손을 떼고 다시 수선(水仙)에 대한 시를 짓기를 기다려 다시 대적할 준비를

36) 柳得恭, 『洽齋集』 권7, 「秋室吟序」, “穉三方噪名士林, 然屢舉屢屈, 遂棄功令業, 扁其所居之室曰秋室. 出其所爲詩示余. 余問秋室何義, 穉三愀然良久曰, 蓋自以爲得秋氣多故爾. 讀其詩濃纖瀏麗, 發以天機, 非近世沾沾於摸擬者比. 余戲之曰, 君得秋氣, 而詩有春雲之態何也. 穉三曰, 終古悲秋之士, 宜莫如屈原宋玉, 然美人香草, 庸何傷乎其爲文也. 余聽其言愛其詩, 而未及有言.”

하겠다고 하였다.³⁷⁾

위 글은 조선후기 시회에서 ‘추제시’가 연작으로 창작되는 현장을 보여준다. 신위가 네 수를 짓고 두 손을 들었으니 이노(怡老)와 광원(曠原)이라 칭해지는 인물은 훨씬 많은 양의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제재로 연작시를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시적 재능을 경쟁적으로 발휘하는 창작방식임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834년 신위가 66세 때 음력 칠월 기망일 가을날에도 ‘추제시’를 창작하는데, 이때 신위는 시회에 참석한 인물을 ‘추사’라고 지칭한다.

장남 명준(命準)이 몽추설(夢秋說)을 지었고, 둘째 명연(命衍)이 그것을 취하여 청추도(聽秋圖)를 그렸다. 광원(曠原) 등 여러 사람들은 모두 ‘추사’이니, 일시에 시를 짓도록 하고 나 또한 이에 시를 썼다.³⁸⁾

‘추사’라는 시인으로서 자의식은 ‘추제시’ 창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정치적 소외의 불우함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인이자 시인으로서 자의식을 수반하고 있다. 신위는 광원이란 인물에 대하여 ‘추사’라고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양일 술을 마시고 과하였는데, 흥중에 아직도 다 쏟아내지 못한 것이 있어 이에 두보의 시집을 취하여 오칠언 율시를 지었는데 일시에 7수를 토해냈다. 나에게 화답의 시를 요구하는데, 시명이 자못 엄중하고 급하였다. 나 역시 한가하게 거처할 때라 마음 또한 여유가 있어 등불아래에서 한편씩 화답하여 시를 쓰자니 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질 정도였다. 속된 인간과는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다.”³⁹⁾ 신위의 이야기를 음미해 보면 ‘추사’라는 의미에는 전

37) 申緯, 『警修堂全藁』 21冊, 北轅集 二, 「怡老, 曠原, 迭出佳篇, 一時并集. 僕則疲於奔命矣, 四疊前韻, 呈二詞伯. 願秋詩則斷手於此, 更待水仙開後, 再整旗鼓耳.」

38) 申緯, 앞의 책 22冊, 山房紀恩集 二, 「伯子命準有夢秋說, 仲子命衍取爲聽秋圖. 曠原諸人, 皆秋士也, 一時命筆爲詩, 余亦題此. 甲午 秋七月既望也.」

39) 申緯, 앞의 책 21冊, 北轅集 二, 「曠原秋士也. 重九飲散, 胸中猶有未盡洩者, 爰取

문 시인, 즉 인생에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 오직 시에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된다. ‘시인’에 비하여 ‘추사’라는 말자체가 조락과 비애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듯이, 이에 따른 시인의 자의식에도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추사’의 자의식이 어느 한 개인적 불우함이 아니라 문인사회 일각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도정치 하에서 정치에서 소외된 지식인이 문인사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대두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자의식이 보여주는 변화는 ‘추제시’ 창작의 성행과 맞물려 있다. 원래 가을경물을 읊은 시는 일반적으로 창작되었지만, 가을 서정은 두보의 『추흥(秋興)』 8수나 한유와 맹교의 『추회시(秋懷詩)』 등을 전범으로 삼아 창작하는 수창이 주도하였다. 19세기 조인영, 조병현, 이복현, 권돈인 등이 모여 두보의 『추흥』 8수의 운을 따라 지은 작품을 모아 『추흥창수권(秋興唱酬卷)』을 제작하였고,⁴⁰⁾ 중국의 동문환이 지은 『추회시(秋懷詩)』에 대하여 조선 사행 이원명, 이용숙, 박영보, 이상적 등이 창작한 시를 모아 『추회창화집(秋懷唱和集)』을 엮었다.⁴¹⁾ 여기에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연작 ‘추제시’의 수창이다. 동번 이만용은 『추음(秋音)』 7수라는 편명아래 『추성(秋聲)』, 『추색(秋色)』, 『추수(秋愁)』, 『추흥(秋興)』, 『추류(秋柳)』, 『추연(秋燕)』, 『추접(秋蝶)』 등 7수를 짓는데, ‘추음(秋音)’은 ‘당시(唐詩)’를 ‘당음(唐音)’이라 칭하는 것처럼 ‘추시’를 지칭한다. 여기서 ‘추시’는 곧 ‘추제시’가 된다. 또 박윤묵(朴允默)은 박기수(朴綺壽)의 ‘추시’에 화답하여 『추회(秋懷)』, 『추풍(秋風)』, 『추운(秋雲)』, 『추월(秋月)』, 『추상(秋霜)』, 『추침(秋砧)』, 『추국(秋菊)』, 『추충(秋虫)』 등 8수를

老杜集中作五七律韻 一時噴成七詩 索余和章 令頗嚴急 余亦閑居 無所用心 燈下逐一和成 多見其汗僵 第不可與俗人道也。」

40) 申緯, 『警修堂全藁』 30冊, 楸軒集 三, 『題秋興唱酬卷 并序』, “其詩皆用老杜秋興八首韻 互相贈答 準八而止 故曰秋興唱酬…”

41) 김명호, 『동문환의 『한객시존』과 한중문학교류』,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407쪽 참조.

짓는다.⁴²⁾ 18세기이후부터 가을경물을 제재로 삼으면서 ‘추’자를 제목에 명시하는 ‘추제시’의 연작 수창이 유행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한중 문인의 수창에도 ‘추제시’가 수창되었다. 오송량의 시에 차운하여 신위는 『추선(秋蟬)』, 『추접(秋蝶)』, 『추화(秋花)』, 『추초(秋草)』 등 4수를 지었고,⁴³⁾ 또 묵농(墨農) 의극중(儀克中)의 『추십영(秋十詠)』의 차운하여 『오동(梧桐)』, 『추류(秋柳)』, 『낙엽(落葉)』, 『추초(秋草)』, 『추해당(秋海棠)』, 『패하(敗荷)』, 『추모란(秋牡丹)』, 『파초(芭蕉)』, 『옥잠아(玉簪兒)』, 『노화(蘆花)』를 짓고, 더 보충하여 『홍료(紅蓼)』, 『벽려(薜荔)』, 『원의(垣衣)』, 『고억(苦蕒)』 4수를 지었다.⁴⁴⁾ 의극중의 『추십영』은 소재목에 ‘추’자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가을경물을 제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작 ‘추제시’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유산이 보여준 ‘추사’라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연작 ‘추제시’가 18세기 조선 문인사회 일각에서 대두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중 지식인의 교류에서도 ‘추제시’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창되었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유산의 연작 ‘추제시’는 10제(題) 108수라는 큰 편폭으로 인해서 특이해보이지만, 전통적 연작시 방식이나 동시대 다른 문인이 지은 연작 ‘추제시’를 확장하면 성립할 수 있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가을경물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하나의 완성된 시세계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가을경물을 다루던 기존 작가와는 다른 의식을

42) 朴允默, 『存齋集』 권14, 『謹和坦齋朴公綺壽秋詩八首』

43) 신위, 『警修堂全藁』 14冊, 倉鼠存藁 二, 『次韻和吳蘭雪 四詩』

44) 신위, 앞의 책 25冊, 祝聖九藁, 『次韻墨農秋十詠』

보여준다. 즉 시인 자신이 처한 현실적 시공간에서 느끼는 인식이나 시적 대상과 접촉하는 순간 촉발하는 심정보다, 더 근원적인 곳에서 나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자의식’이 관철되어 나타난다.

유산은 세도정치의 파란 속에서 폐족으로 전락한 가문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극심한 고통과 고뇌의 세월을 보냈다. 유력인사들과 친밀히 사귀며 시주를 즐겼지만 현실적 돌파구가 절실했던 유산에게는 갈등과 번민을 가중시켰고, 아버지 다산으로부터도 자신의 노력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였다. 60세의 노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회고하였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와 불우한 운명에서 오는 이 고통과 고뇌를 빼놓고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연작 ‘추제시’에서 육십 평생의 수심을 누차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 고통과 고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산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마치 전쟁을 겪은 전사에게 상처가 훈장이듯이, 폐족으로 겪은 인생의 비애와 고통은 그가 살아온 삶의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산은 자신의 불우함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진솔하게 표현하여 ‘추사’라는 자의식을 표명하였고, 조락하는 가을경물과 공감하며 비애감이 주조를 이루는 시세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불우한 생을 경험하며 고뇌한 자만이 조락하는 만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연작 ‘추제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몇몇 자료에 의하면 ‘추사’라는 자의식과 ‘추제시’의 창작은 18세기 중반이후 일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확산되며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에서 소외된 지식인이 문인사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심미적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며, 정학연의 연작 ‘추제시’는 그 절정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세도정치가 강화되어가며 정치에서 소외된 지식인들이 보여준 사(士)의식과 심미적 태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현상으로 ‘추

사’의 자의식과 ‘추제시’ 창작 동향은 주목을 요한다. 뿐만 아니라 ‘추제시’는 한중 지식인의 교류에서도 주요한 수창의 제재였다는 점에서 양국 지식인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조선과 청나라의 지식인들이 고착된 왕조정치의 모순아래 정치적 소외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심미적 태도에 보인 변화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향후 조명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南秉哲, 『圭齋遺藁』,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朴允默, 『存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朴齊家, 『貞藜詩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申 緯, 『警修堂全藁』,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申弼永, 『玉坡集』, 국립중앙도서관.
柳得恭, 『冷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李尙迪, 『恩誦堂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丁若鏞, 『茶山詩文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丁學淵, 『三倉館集』, 『다산학단문헌집성』1, 대동문화연구원, 2008
洪萬選, 『山林經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郭知達 篇, 『九家集注杜詩』,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劉義慶, 『世說新語』,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范仲淹, 『范文正集』,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陸 游, 『劍南詩藁』,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 洪吉周 지, 박무영 이주해 외역, 『縹緗乙幟』(中), 홍길주문집 4, 태학사, 2006
- 김명호, 「동문환의 『한객시존』과 한중문학교류」,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김영진, 「유산 정학연 자료 해제」, 『다산학단문헌집성』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김지영, 「삼창관집을 통해본 유산 정학연의 초기 시세계」, 『시학과 언어

학』 23, 시학과언어학회, 2012.

신익철, 『시선집 선음과 정학연 가을 연작시의 정서』, 『장서각』 13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이철희, 『경세가 정약용에서 시인 정학연으로-다산가 시학의 변화와 19세기 문인사회』, 『한국한문학연구』 50집. 한국한문학회, 2012.

이현일, 『동변 이만용 시 연구(1)-동변집 소재 칠언율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이현일, 『이봉환 삼대의 비원』 『문헌과해석』 20, 문헌과해석사, 2002.

정석중, 『순조년간의 정국변화와 다산해배운동』, 『국사관논총』 47, 국사편찬위원회, 1993.

A Study of the Poems on Fall by Jeong Hak-yeon and the Self-consciousness of a Poet Feeling Pathetic for Fall

Lee, Chul He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life and the consciousness of Jeong Hak-yeon as a writer with a view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his creation of a long poem sequence with the scenery of fall as the main material.

Jeong Hak-yeon actively kept company with the influential figures in Hanyang (present Seoul) in order to help save his father Jeong Yak-yong living in exile and, at the same time, accumulated his fame as a poet by showing his skills of poem recitations in social get-togethers. After the death of King Jeongjo and the following factional feuds between Sipa (時派) — on the side of the deceased monarch and Jeong Yak-yong — and the opposition Beokpa (辟派) lasting for a long period, the issue of rescuing Jeong Yak-yong and promoting his comeback to politics long fettered the life of Jeong Hak-yeon during and after his father's 18 years of exile. Human relations he had elaborately established in the midst of power politics and smoldering factional strife only aggravated his ill fate. What is worse, his conflict with his own father who had long wished him to be a great scholar made him experience further agony. At the old age of 60, he recollected his painful past and sang his heart-rending sorrows, which became the main themes of the poetry.

* Chief Researcher, Sungkyunkwan University

Jeong Hak-yeon expressed his own self-consciousness in his own work titled “Chusa (秋士),” literally meaning “a poet who feels pathetic for fall,” thus showing the true emotion of a poet by expressing his inner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disharmony with the real world and by frankly portraying his image as a frustrated intellect. Jeong expressed his consciousness as a writer with which had created his world of poem dotted with sorrows through the portrayal of the autumn scenery.

After the mid-18th century, recitations of poems with the theme of fall became popular among the literary circles of Hanyang and there emerged the self-consciousness of “Chusa.” As the intellectuals who had been marginalized from the politics took a lion’s share of the literary community, they expressed their own identity and aesthetic attitude more frankly. And the long poem sequence by Jeong Hak-yeon is at the height of the style.

Key Words: Jeong Hak-yeon, Jeong Yak-yong, Chusa (秋士), the Poems on Fall, Self-consciousness of a Poet

필자 E-Mail: silsi94@hanmail.net

투고일: 2014년 7월 8일/ 심사완료일: 2014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4일